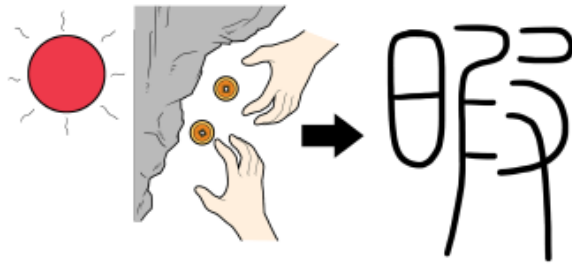


회의문자①



暇

틈/겨를
가:

暇자는 '여유'나 '한가하다', '틈'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暇자는 日(해 일)자와 段(빌릴 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段자는 무언가를 손으로 건네주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빌리다'나 '빌려 주다'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빌리다'라는 뜻을 가진 段자에 日자가 더해진 暇자는 '날을 빌리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기서 날을 빌린다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暇자는 휴식과 관련된 뜻으로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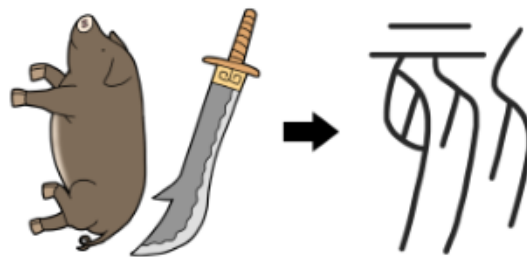
暇

소전

暇

해서

회의문자①



刻

새길 각

刻자는 '새기다'나 '벗기다', '깎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刻자는 亥(돼지 해)자와 刀(칼 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亥자는 돼지를 그린 것이다. 그런데 亥자는 살아있는 돼지가 아닌 가공한 돼지를 그린 것이다. 돼지를 뜻하는 글자로는 豕(돼지 시)자도 있다. 이 두 글자의 갑골문을 보면 豕자는 돼지를 온전히 豕 그렸지만 亥자는 머리와 다리가 잘린 豕 모습이었다. 이렇게 도살한 돼지를 뜻하는 亥자에 刀자가 결합한 刻자는 잡은 돼지를 자른다는 뜻이다. 刻자에 '벗기다'나 '깎다'라는 뜻이 있는 것도 사실은 돼지를 나눈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刻자는 단순히 무언가를 새기거나 부각한다는 뜻으로만 쓰이고 있다.

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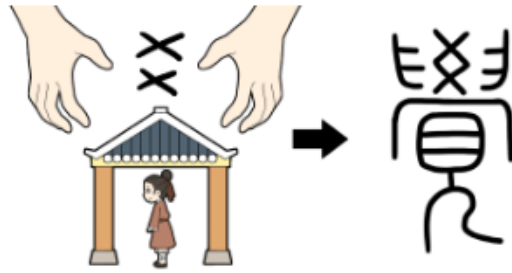
소전

刻

해서

4
-
3

회의문자①



覺

깨달을
각

覺자는 '깨달다'나 '깨우치다', '터득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覺자는 學(배울 학)자와 見(볼 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學자는 아이가 집에서 배움을 얻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배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배우다'라는 뜻을 가진 學자에 見자가 결합한 覺자는 '보고 (見) 배운 것(學)'이라는 뜻이다. 覺자는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직접 보고 나서야 알게 됐다는 의미에서 '깨우치다'나 '터득하다'라는 뜻을 갖게 된 글자이다.

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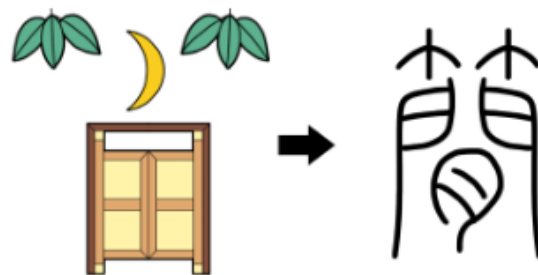
소전

覺

해서

4
-
4

형성문자①



簡

대쪽/간
략할
간(·)

簡자는 '편지'나 '간략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簡자는 竹(대나무 죽)자와 間(틈 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間자는 문틈 사이로 달빛이 새어 나오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簡자는 간략하게 쓴 편지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고대에는 대나무를 잘라 만든 죽간(竹簡)에 글을 썼다. 죽간을 엮어 이어붙이면 篇(책 편)이 되지만 묶지 않는다면 簡이 된다. 簡자는 한 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적지 못했다. 그래서 簡자는 간략한 내용을 적어 보내던 '편지'를 뜻하다가 후에 '간략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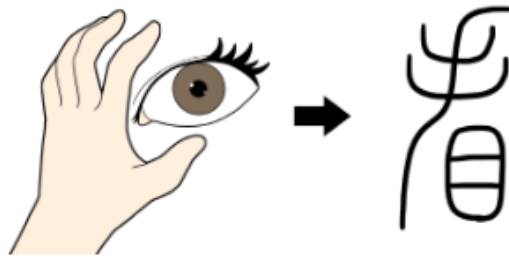
소전

簡

해서

4
-
5

회의문자①



看

볼 간

看자는 '보다'나 '바라보다', '관찰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看자는 手(손 수)자와 目(눈 목)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看자는 눈 위에 손을 올려놓은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러니까 看자는 사물을 세심히 관찰하기 위해 눈언저리에 손을 갖다 대고 살펴본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래서 看자는 단순히 '보다'가 아닌 '자세히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看

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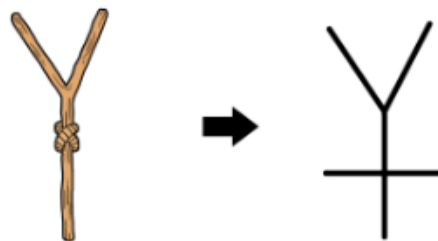
看

해서

看은 手(손 수)와 目(눈 목)이 결합한 회의문자이다. 看은 손이 눈 위에 올려놓여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러니까 看은 사물을 세심히 관찰하기 위해 눈언저리에 손을 갖다 대고 살펴본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래서 看은 단순히 '보다'가 아닌 '자세히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4
-
6

상형문자①



干

방패 간

干자는 '방패'나 '막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干자는 방패를 그린 것이다. 그런데 갑골문에 나온 干자는 화살이나 칼을 막는 방패를 그린 것이 아니다. 干자는 손에 드는 방패가 아니라 적이 성안으로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구를 봉쇄하던 방패를 그린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사슴의 뿔처럼 생겼다 하여 '녹각책(鹿角柵)'이라고도 한다. 그러니 干자는 긴 나무를 엮어 놓은 모습을 그린 것이다. 방패는 적의 진입을 방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干자에는 '막다'나 '방어하다'라는 뜻이 있다. 다만 상용한자에서 干자가 부수로 쓰인 글자들은 대부분이 모양자 역할만을 하고 있다.

干

갑골문

干

금문

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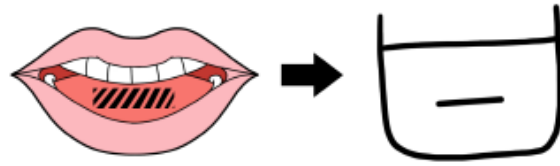
소전

干

해서

4
-
7

지사문자①



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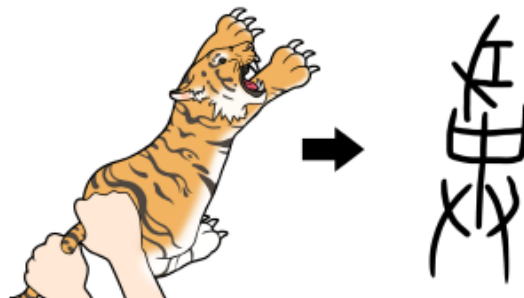
甘자는 '달다'나 '맛 좋다', '만족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甘자는 口(입 구)자에 획을 하나 그어 입안에 음식이 들어가 있음을 표현한 지사문자(指事文字)이다. 甘자는 이렇게 입안에 음식이 들어와 있다는 의미에서 '만족하다'나 '달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甘자의 사전적 의미는 '달다'나 '맛 좋다'이다. 그러나 실제 쓰임에서는 𦰩(달 첨)자가 '달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甘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주로 '먹다'와 관련된 뜻을 전달하고 있으니 甘자를 반드시 '달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달 감

| | | | |
|-----|----|----|----|
| | | | |
| 갑골문 | 금문 | 소전 | 해서 |

4
-
8

회의문자①



敢

敢자는 '감히'나 '함부로', '용맹스럽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갑골문에 나온 敢자를 보면 맹수의 꼬리를 붙잡는 모습이 𧈧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용맹함을 표현한 것이다. 금문에서는 여기에 '달다'라는 뜻의 甘(달 감)자가 함께 쓰여 발음역할을 했다. 소전에서는 맹수의 머리와 몸통이 月(육달 월)자와 𠂔(머리 계)로 바뀌면서 지금의 敢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敢자는 본래 '용맹하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히'나 '함부로'라는 뜻이 확대되었다.

감히/구
태여 감:

| | | | |
|-----|----|----|----|
| | | | |
| 갑골문 | 금문 | 소전 | 해서 |

상형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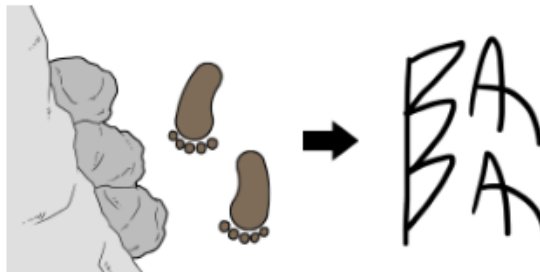
甲

갑옷 갑

甲자는 '갑옷'이나 '딱지'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甲자는 딱딱한 껍질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는 甲자가 갑옷에서 유래한 글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골문에서의 甲자는 단순히 +자만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미늘 조각을 연결해서 만든 찰갑(札甲)의 문양을 표현한 것이다. 소전에서는 숫자 十(열 십)자와 혼동을 피하고자 돌레를 감싼 형태로 바뀌게 되면서 지금의 甲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참고로 甲자는 천간(天干)의 첫 번째 글자로도 쓰이기도 한다.

| | | | |
|-----|----|----|----|
| | | | |
| 갑골문 | 금문 | 소전 | 해서 |

회의문자①



降

내릴 강:
| 항복할
향

降자는 '항복하다'나 '내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降자는 阜(β : 언덕 부)자와 夨(내릴 강)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夨자는 발이 아래로 향해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내리다'라는 뜻이 있다. 降자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을 그린 夨자에 阜자를 결합해 '(언덕을)내려오다'라는 뜻을 표현했다. 언덕에서 내려오는 모습은 적에게 투항하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그래서 降자는 '내려오다'라는 뜻 외에도 '항복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이때는 '향'으로 발음한다.

| | | | |
|-----|----|----|----|
| | | | |
| 갑골문 | 금문 | 소전 | 해서 |